

Alain Decaux

1925년 Lille에서 출생. 파리법과대학졸업.
기자, 역사가, 방송인.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 창간편집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
국립 시청각 통신 위원회 위원. 불어문화권
위원회 위원. 불어문화권 장관 역임. 저서로
는 *Louis XVII, l'Histoire de France
racontée aux enfants, La conspiration du
général Mallet, Les dossiers secrets de
l'histoire, Victor Hugo, Le Tapis rouge*
등이 있음.

불어문화권의 쟁점들

알랭 드꼬

신사 숙녀 여러분, “현대 세계에서 의 불어문화권의 쟁점들”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추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열린 불어문화권 국가 원수들간의 제3차 정상회의에서였습니다. 저의 나라인 프랑스의 대표자는 당연히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었고 저는 불어문화권 담당 장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국가 원수들이 맨 앞줄에 앉았고, 저는 그 뒷줄에 앉았습니다. 저는 회의장의 테이블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41개국, 아니 44개국의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테이블 옆에 앉은 신사 숙녀분들이 그렇게 서로 다룰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시선은 국제 회담의 관례상 알파벳 순에 의해 우연히 마주 보고 앉은 두 신사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두 분은 캐나다의 수상인 브라이언 멀로니 Brian Mulroney씨와 베트남 국가 평의회장이자, 베트남의 제3인자인 구이엔 위토 Nguyen Huto씨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심히 그들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이함에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왔고, 다른 한 분은 동남 아시아에서 왔으며, 한 사람은 소위 백인종에 속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황인종에 속하였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한편에는 브라이언 멀로니씨가 있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는 다른 한편에는 구이엔 위토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온 이유가 무엇일까 따져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닌게 아니라, 물론 있었습니다. 그들

이 거기 있는 이유는 바로 불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말하자면, 그 두 사람, 그 두 얼굴로 대변되는 불어문화권에 대한 정의(正義)였던 것입니다. 매우 오래된 것인 동시에 매우 최근의 것인 불어문화권말입니다.

불어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불어문화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확고히해야 할 전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불어를 연구하고 계시고, 불어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어의 역사를 소상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불어는 로마가 끝 지역을 점령한 이후, 라틴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라틴어는 갈로 로망어라고 불리는 언어를 낳았고, 이 갈로 로망어로부터 점차적으로 불어가 탄생되었습니다. 842년의 스트라스부르의 서약 *Le Serment de Strasbourg*은 로망어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이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경에 국왕의 언어, 다시 말해서 여러 제후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지만, 높은 명망 때문에 다른 제후들보다는 우월한 권위를 지닌 프랑스의 국왕의 치하에 있던 일르 드 프랑스의 언어인 이 국왕의 언어가 그의 왕국 전체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불어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어의 탄생에 관해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불어문화권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불어문화권의 출발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까요? 저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16세기로서, 모험가들, 참으로 놀라운 모험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대서양의 다른 쪽 해안을 보러 떠났고, 그때 이미 캐나다라고 불리던 - 그곳 거주민들, 토착민들이 붙여준 이름이 캐나다였으니까요 - 지역의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크 카르티에 Jacques Cartier, 자크 카르티에 같은 모험가들에 뒤이어, 여러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노르망디 출신, 샬랑트 출신, 푸아투 출신이 있었고, 그 수는 더 작지만 일르 드 프랑스 출신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그야말로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미지의 곳으로 향하기 위해 배에 올라타는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된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시대엔 조금은 퇴색되어버린, 놀랍도록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는, 많고 많은 어려움들, 각양각색의 드라마와 비극이 따랐습니다. 쫓겨가고 되돌아오고, 또 쫓겨가고 또 돌아오고...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원주민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거주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사냥을 하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기술을 발휘하며 살아남기 위해 그곳에 온 프랑스인들은 이 인디언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디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사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피 장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이 사냥하여 모피를 구해오면 프랑스 상인들이 그들에게 모피를 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고,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언어, 각 부족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말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편이 훨씬 실제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되돌아갈 희망 없이 그 곳에 정착하였고, 그곳에 묻혔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뒤를 이어 또 그 곳에 묻히고, 이런 식으로 대대손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인들이 50년, 60년, 100년도 더 된 자신들의 출신지의 언어를 잊고 이웃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만을 말했더라면 더 실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 이웃의 언어를 말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불어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불어를 물려주었고, 이 후손들은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불어문화권의 기원을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여기에서 불어문화권에 대한 정의(正義)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의 출발점에 관해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단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 한 언어에서 단어들이란 그 단어들의 발생년도를 개략적으로 밝히는 로베르 사전과 같은 사전들에 기록되었을 때 비로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한 단어에 실제로 발생연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불어문화권은 1880년에 태어났고, 그것은 오네 짐 르클뤼 Onésime Reclus 덕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리학자인 오네 짐

르클뤼는 엘리제 르클뤼 Elisée Reclus라는 이름의 훨씬 더 위대한 지리학자의 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지리학자였다는 것은 이 두 형제가 서로 우애하였고, 둘 다 무정부주의자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는 우리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1880년에 출판된 한 책에서 오네짐 르클뤼는 최초로 ‘불어문화권 francophonie’, ‘불어사용자 francophon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어사용자란, 일상적으로 불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불어문화권이란 불어사용자들의 총합이다”라고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캐나다인이 된 우리 프랑스인들은 따라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어사용자가 된 셈입니다. 이 모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인들은 대해(大海)를 건너가 여기 저기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소멸되기도 했던 여러 식민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북아메리카 불어권 식민지도, 인디언 식민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해 소식민지들, 다른 식민지들은 존속되었으며, 당연히 프랑스인들은 이 지방들에 자신들의 언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랄 만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상으로, 세계사나 특히 식민지사를 통해서 더러 만나게 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보다 특이한 것은, 역사가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도록, 그 곳에 먼저 우리의 존재를 정착시키고 그 다음엔 우리의 언어를 정착시키도록, 또 차츰차츰 우리가 그 곳에서 물러 나오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묘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18세기, 최초의 프랑스 이주민 가족들이 도착한 지 2백년이 지난 후의 캐나다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8세기에 대 전쟁이, 즉 7년 전쟁이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프랑스인들과 영국인들을 대립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전쟁은 캐나다에서도 계속되었고, 종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우리는 몇몇 해외 속령들을 잃었고, 이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였던 영국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모든 것이 영국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행정과 병역이 영국식이 되었고, 세금도 영국 화폐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는

리적으로는, 불어는 소멸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대단히 복합적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이 신분증을 만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 반드시 이 언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불어는 사라져야 했음에도, 천만에요, 불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퀘벡에 있었던 캐나다인들, 대서양 연안의 아카디아 지방에 거주하던 이들, 캐나다의 몇몇 북부 지역에 흩어져있던 이들, 즉 캐나다-프랑스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바로 이 불어사용자들이 악착같이 불어를 지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무도 기이하고,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만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유일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선 불어문화권에 관한 설명에서 그러한 곳들이 어디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두 나라로 갈라져 아이티 공화국과 도미니크 공화국으로 분리된 산토 도밍고 Saint-Domingue를 예로 들어 봅시다. 산토 도밍고는 프랑스의 속령,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프랑스 대혁명기에 독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던 아이티에서, 아이티인들이 불어를 고집하였습니다. 아무런 강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했고, 프랑스는 그곳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거든요.

또다른 예를 살펴 봅시다. 1810년 우리는 인도양에 있는 모리스 섬 L'île de Maurice에 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초부터 우리는 그 곳에 정착해서, 우리가 갔던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곳에 우리의 언어를 정착시켰습니다. 1810년, 마침내 영국인들이 우리를 대신하러 모리스 섬에 도착하였고, 캐나다에서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어가 쓰였고, 행정, 병역, 조세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사용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스 인들은 아무런 논리적 이유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어를 말하려고 노력하였고, 오늘날 모리스 섬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이상하긴 이상한 현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곳에도 갔었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인도차이나에 갔었고, 금세기에 그 곳을 떠나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역시

금세기에 떠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세네갈의 경우 18세기였던 것처럼 우리는 아프리카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진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몇몇 정부들이 옹당했어야 할 바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들로 인하여, 프랑스가 식민지 해방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프랑스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대처한 정부들, 저는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연루되어 커다란 드라마, 대참사가 되었던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전쟁과 알제리 전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상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식민지 해방이 제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권력에 복귀한 드 골 장군에 의해 취해진 입장이 드 골 장군의 영광이 되었고, 그것이 또 프랑스의 영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지구 상에서 프랑스의 식민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사건이 완성되고, 계속되고, 연이어진 것도 바로 그 때인데, 이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불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에 도입된 우리의 불어가, 이 지역들로 보자면 근본적이고 더 오래된 언어들에 말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자신의 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언어만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속어, 우리의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하였던 언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미 프랑스인들이 떠났으므로, 덤으로 따라온 불어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반대로 불어를 고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어문화권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3-4년 전에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 Léopold Sédar Senghor 대통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독립 세네갈의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 대통령은 그 자신도 프랑스적인 교양에 젖어 있었고, 문법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네갈이 독립하기 직전 프랑스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하였으므로, 그 자신 불어사용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생고르 대통령은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하루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1958년 드 골 장군은 권력에 복귀하자마자 즉각 염두에 두고 있던 철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 당시, 브라자빌 Brazzaville에서 식민지 해방을 통고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해방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은 어떤 틀에서, 어떤 틀 안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였고, 그 다음엔 드 골 장군은 이러한 틀이 존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960년, 그는 엘리제 궁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네갈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장차 대통령이 될 생고르를 접대하였습니다. 프랑스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세네갈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접대한 셈이죠. 드 골 장군은 생고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오셨군요”. 장군은 의견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생고르씨가 그때는 아직 생고르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었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장관, 이렇게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세네갈은 독립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고르의 감동이 어떠하였을지는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옹당 생각할 수 있듯,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군, 역사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로 감사를 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 골 장군은 일어나서 생고르를 자신의 집무실 문까지 배웅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 이 이야기는 바로 생고르 자신이 한 것입니다. 저는 증인 자격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고르도 거기 있었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 생고르는 문 앞에서 몸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장군, 아프리카의 우리 모두는 곧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저는 역사의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군, 정말로 당장,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 즉 불어를 수호하고 그것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게 있어서 불어문화권의 역사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나갈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즉각적인 요

구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생고르는 말했습니다. 뒤이어 몇 달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튀니지의 하비브 부르기바 Habib Bourguiba가 똑같은 주장을 하였고 불어가 현대적 언어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 Norodom Sihanouk 역시 어떤 기구,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더 이상 오직 프랑스인들만의 언어가 아닌 불어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혁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불어는 프랑스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어는 프랑스인들만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어는 언제나 프랑스인들의 언어였으며, 우리 프랑스인들은 우리의 언어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어는 이제 불어 문화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퀘벡인들, 그중에도 장 마르크 레제르 Jean-Marc Leger는 큰 반항을 일으켰던 논문을 썼습니다. 벨기에에서도 불어사용권이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에 걸쳐 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이해 보이는, 외관상으로 기이해 보이는 이 현상은 사실 그렇지 않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적은 목소리를 낸 것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많은 불어사용자들을 보유한 까닭에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프랑스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프랑스에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럴 용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집권당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탈식민화를 이룬 프랑스는 어떤 일을 꾸미는 듯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무엇인가’를 창설하여 이러한 요구에 찬의를 보냄으로써, “무슨 흑막이 있지?”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일지라도 들리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해방은 진지하고,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이은 프랑스 정부는 선뜻 이 뭔가를 창조함으로써, 어떤 속셈을 감추고 있거나 않

는가라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온갖 종류의 주도적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발의는 1966년에 있었습니다. 불어문화권 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데, 조직을 갖지 못하는 데 지친 나머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발의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권한으로, AUPELF, 즉 «전체 혹은 일부가 불어를 사용하는 대학 협의회 Association des Universités partiellement ou entièrement de la langue française»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결집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학에서 일하시는만큼 불어문화권의 최초의 조직적인 단계가 대학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 역시 하나의 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것은 AIPLF, «국제 불어권 의원 협의회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parlementaires de langue française»였습니다. 이 협회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불어문화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70년에 정부들이 협회를 경성하기 결정하였습니다. 약 서른 개의 불어권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프리카의 니아메 Niamey에서였습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들이 개입한 최초의 결의였고, 프랑스 역시 이 삼십여 개의 국가들 중의 일원으로서, 이니셜을 따서 ACCT라고 불리는 «문화 기술 협동체 Agence de coopération culturelle et technique»를 창설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ACCT는 삼십 개 국가 상호간의 교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교류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을 위한 어떤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교원, 교수, 통신 수단의 교류 뿐만이 아니라, 의학, 건강, 농업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가 간에, 불어문화권과 불어문화권 간의 교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70년 역시 불어문화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는 해입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7년 간의 첫 임기를 마치고 1984년 대통령에 재선된 미테랑 대통령은, 젊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곧 들어왔던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찌기 정치에 뛰어들었고, 다른 나라의 불어사용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생고르와 마찬가지로 미테랑 대통령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회의 석상에서 여러 차례 이런 말을 들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건가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만의 기구인 «불어문화권 최고 평의회 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를 프랑스에 설립하였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국가 원수가 다른 불어문화권 국가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평의회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국제 기구가 아니라 프랑스의 대통령에 의해 그 구성원들이 임명되는 프랑스 내의 기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구성원들을 불어문화권 전 지역에서 선출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정부들과 의논하여, 각 정부들에게 후보자들을 추천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위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1984년 이 최고 평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프랑스를 대표하여, 프랑스인 자격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정관에 규정된대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주재되는 이 최고 평의회에 저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이지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어 때문이었는데...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벨기에 분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불어사용자의 언어가 된 불어에 대한 열정, 그러한 열정을 모두가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목격했을 때, 저는 정말이지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해묵은 호소, 생고르, 부르기바, 노로돔 시아누크의 그 호소에 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테랑 대통령에게 최고 평의회가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조언이었으니까요. 불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 조직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그 점을 확실히 못박아두고 싶어 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외무 장관에게 불어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의 원수

들을 파리에 초청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불어사용자들만이 살고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프랑스 뿐이니까요.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다 불어를 말하지만, 불어문화권의 다른 나라들은, 예외 없이, 그들에게 속한 언어, 그들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으며, 불어는 덤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불어사용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불어사용자들만이 있는 곳이라도 할지라도, 극소수라도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극소수도 자신들을 표현할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가령 이집트의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불어문화권 회합에는 늘상 이집트 대표로 참석했던, 바로 이런 연유로 그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만,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림 Boutros Boutros Ghali씨의 표현대로 말입니다. 이집트가 초청된 것은 그러한 논리에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 줄 압니다. 왜 이집트가 모든 불어권 회합에 참석할까요? 왜 인구의 1% 밖에 안되는 불어사용자들만이 있음에도 불어문화권에서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5천만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 1%라면 50만이지요. 어찌 50만의 이집트의 불어사용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다른 불어사용자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다른 불어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대단히 호감이 가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인 논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초청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유의 언어와 불어를 함께 가진 모든 다른 나라들 중에서, 저는 코트 디브와르의 주민들이 쓰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불어문화권과 그것이 유지되는 방식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 디브와르인들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모국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서 불어라는 제2의 언어가 있지요. 그리고는 그밖의 외국어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도처에서 통용되는 논리이고,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초청되었던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테랑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기 위해, 더이상 소문만이 무성하고, 몇몇 개인들만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한 것이지요. 그들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 않으면 되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시도가 실제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불어문화권 국가 원수들이 초청되었고, 1986년 2월에 41개국의 국가원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는 주요 불참국들이 있었습니다. 알제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참석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불어문화권에 완전히 새로운 전망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지 않겠다고 고집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참석하지 않았던 알제리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은 궤도에 올랐고, 잘 진척되어 갑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손실이 있는 법이고, 사상자가 생기고 피를 보게 마련이지요. 많은 고통과 눈물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들의 전쟁 역시 참혹했었고, 피도 눈물도 마찬가지로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나쁜 기억들도 다스리고 극복하여 제1차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라오스도 제1차 회의부터 참석하였습니다. 반면 카메룬은 오지 않았지요. 이상하게도 스위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결정하기 전에 우선 관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41개국 정상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스럽게도, 운이 좋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불어문화권 제1차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테랑 대통령은 교양이 높으신 분으로서 일상 생활에서도 역사 감각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요, 그분께서는 이 최초의 정상회담이 베르사이유 궁에서 열리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선택으로서 역사가인 저는 그 선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불어가 일정한 어휘로 가장 잘 표현되었던 것은 고전주의 시기의 고전주의 불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어를 중심으로 놓고 베르사이유 궁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

다.

제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저는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컨대, 저는 그 당시에는 장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직은 훨씬 나중에 우연히 맡게 되었지요. 제가 거기 있었던 것은 당시 제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었고, 미테랑 대통령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대표단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지구 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불어문화권 관련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635년 리슐리외 추기경과 루이 12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12명의 회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화가 다비드의 제자에 의해 집정 시대에 디자인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푸른 옷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유니폼이었습니다. 우리는 검(劍)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불어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우리 12명의 아카데미 회원들이 푸른 옷을 입고 나란히 섰을 때,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연단을 보니, 41명의 국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인인 브라이언 멀로니씨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식 이름을 지니고 있었고, 또 영어사용자였습니다. 브라이언 멀로니 Brian Murloney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불어사용자가 아닌 법입니다. 그러나 다언어 사회인 캐나다 연방은 주민들 중의 일부인 불어사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 벨기에의 수상 마르텐스 Wilfred Martens씨도 있었는데, 마르텐스 Martens라는 이름은 불어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네델란드어를 사용하였고 플랑드르 사람입니다. 플랑드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위해 싸움을 벌여왔고, 그 사람 또한 플랑드르인인데도 불어문화권을 인정하고 불어문화권을 책임지기 위해 거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원수들중 최연장자인, 코트디부아르의 펠릭스 Félix Houphouët-Boigny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세네갈의 대통령인 디우프 Diouf, 베트남 대표자이며 당시 정보부 장관을 지낸 쿠 후이 칸 Cu Huy Can씨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아니,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

두가 말을 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중 열 명 가량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제비를 뽑았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좀 지루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어가 찬탄할 만한 것이며,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 따위를 말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 라트시라카 Didier Ratsiraka씨에게로 발언권이 돌아갔었는데, 당시에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의 관계는 남극 대륙의 한겨울같이 냉랭했었지만, 마다가스카르에는 많은 불어사용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도 초청되었습니다. 불어사용자들이 사는 모든 나라들이 초청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참석하겠다고 답한 바 있었습니다. 그가 발언하였습니다. 꼬박 한 시간동안 행복에 대해서만 말했던 우리는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한 사람이 기탄없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5분 동안 탁월한 불어로 지독한 독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트시라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는 어떠한 함정에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며, 또 마다가스카르는 네오-제국주의, 네오-식민주의, 네오-자본주의를 영원히 거부할 것입니다.” 저는 그 분이 용케도 몇가지의 네오(néo)들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방에서는 그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겨울 아침이었고, 난방이 되었지만, 베르사이유 궁의 기온이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온거야? 필시 이런 말이나 하려고 온 거라면 차라리 안오느니만 못했는 걸. 알제리인들처럼 그냥 자기네 나라에 가만히 입다물고 있을 것이지.” 이 육고 그는 발언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에는 무시무시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테랑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정면에 그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짢은 기색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라트시라카 대통령은 효과를 낼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분을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

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께선 도대체 제가 왜 여기에 왔을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새로이 침묵이 이어지자, 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것은 불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따금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앞서 묘사했던 대로 여러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자크 카르티에가 있었고, 그 뒤 드 골 장군의 집무실에 있었던 생고르, 국회의원들, 대학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스스로 묻곤 합니다. 불어문화권의 개막의 신호를 알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라트시라카씨가 아닌가 하고요. 계획의 주도자들과 뜻이 맞지 않아 절대적인 대립 상태에 도달한 사람. 그러다가 결국엔 사랑의 활 시위를 당기듯 “제가 온 것은 불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던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트시라카씨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불어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 말을 되새겨보곤 했습니다. 몇 해 후, 장관이 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저는 그 분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분께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당신의 말씀을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저는 불어문화권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트시라카 대통령은 매우 흠족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 원수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들어내는 것,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 기술 협동체 Agence de coopération culturelle et technique»가 있었으므로, 또 협정에 서명한 30개 국가가 있었으므로 그 당시의 구상은 ACCT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조 계획을 발의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평균 2년에 한 번씩 국가 원수들 간의 정기적인 회합을 갖자는 결의가 내려졌고, 결정 사항에 대한 실행은 ACCT에게 위임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이미 제1차 파리 정상회담에서 25개의 명확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결정들을 실행에 옮겨 실현시켜야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들 중의 중요한 하나는,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를 주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국

의 설립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싶은 마음은 없으므로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의학 분야에서 말라리아, 에이즈 등, 많은 것들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실제적인 사업들이 수행되었습니다. 공통의 언어라는 기치 아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수다를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박한 그들의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였고, 이를 통해 창조된 불어문화권 공동체는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정상 회의는 캐나다 퀘벡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 회의 중에 국가 원수들이 채택한 선언문 중의 한 귀절을 좋아합니다. 그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어를 사용하는 우리 연방과 국가의 원수들은 우리 사이에 연대 공동체가 창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연대 *solidarité*란 아름다운 말이며 위대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불어문화권의 연대가 천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 중 하나가 필요할 경우엔 모든 다른 구성원들의 연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1989년 4월 다카르에서 열린 제3차 정상 회의에서도 여러분은 불어문화권이 구체화되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정상회의는 유럽의 파리에서, 2차 정상회의는 아메리카 대륙의 퀘벡에서, 3차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의 다카르에서 열렸으며, 아시다시피, 4차 정상회의는 다시 파리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10년이나 15년 전이었다면, 프랑스인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례로 돌아가며 회담을 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이르 Zaire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자이르는 연일 계속되는 혁명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따라서 그곳에서 정상회의를 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세네갈 디우프 대통령이 회담을 주재하였는데 - 왜냐하면 접대국의 대통령이 향후 2년 동안 회담을 주재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디우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

었습니다. 파리에선 손님을 맞아 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방들이 있었으니까요. 회의준비는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담은 모리스 섬 L'île de Maurice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양에 위치한 모리스 섬으로, 즉 지구의 반대편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후보지는 베트남으로 선정되었으니 다음 번엔 동남아시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어문화권의 세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성'이란 말에서 저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리바롤 Rivarole에 의해 쓰여진 『불어의 세계성에 관한 담론 *Discours sur l'universalité de la langue française*』이라는 유명한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책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우월한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그래, 18세기에 불어는 세계적이었지.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럴까?” 우선 리바롤의 '세계적'이란 말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리바롤이 말하는 세계성이란 그의 정신 속에 있는 유럽에 국한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분명히 리바롤이 말한 유럽에서 불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지 않았으니, 세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카트린느 2세, 카트린느 여제는 생-페테르스부르에서 불어로 말하였고,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2세도 베를린에서 불어를 썼으며, 오스트리아의 마리-테레즈 여제도 비엔나에서 불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세계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군주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불가 강 Volga 가에서 배를 물던 사공들이 불어로 말했을까요? 동 프러시아의 들에서 쟁기를 끌던 농부가 불어를 사용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티롤 산악 지방 주민들 역시 불어를 사용했을까요? 고작 몇몇 사람들만이 있었을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기에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지구 상에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우선 프랑스에 2천 4백만의 인구가 있었고, 이 중 45%만이 불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태반이 넘는 프랑스인들이 불어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구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방어인 브르통어, 알사스어, 플라망어, 바스크어, 프로방스어 또는 방언이나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반이 넘는 프랑스인들이

불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어사용자들을 합쳐 1789년에 이 지구 상에는 1천 2백만명의 불어사용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파리 정상 회담에서 41개국이었던 것은 다카르 정상회의에서는 44개국이 되었고, 지난 11월의 최근의 파리 정상회의에서는 47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불어사용자들을 만들어내는거지?”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외무장관은 제가 장관이었을 때,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소, 장관, 우리는 다카르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장관, 왜 파리에는 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왜 퀘벡에는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오래된 나라이고,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탐욕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관, 당신은 속셈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스위스의 외무 장관 펠베르 Felber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스위스가 잘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는 속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불어문화권은 속셈이 존재하지 않는, 20세기에는 매우 희귀한 인간적인 시도들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정상회의엔 다른 6명이 와서 47명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온거죠. 전에는 루마니아가 철의 장막에 의해 세계와 분리되어 있었지만, 철의 장막이 붕괴되었고 루마니아는 불어사용자의 나라였습니다. 27%의 루마니아인이 유창하게 불어를 말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웬만큼 불어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꼬리를 물고 모여들어 오늘날의 불어문화권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아직 많지만, 제가 이미 너무 오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전세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세계에는 물론 불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도 존재합니다. 10억 인구에 의해 말해지는 언어들도 있는데 반해, 불어는 보통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든 불

어사용자들과 접촉을 가지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어를 위해서는 이상한 숙명, 이상하면서도 현실적인 숙명, 이해 관계보다 애착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운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언어들에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유용하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인인 저를 기쁘게 만든 것은 “언제 결정을 내릴 건가요? 뭔가를 언제 할 작정인가요?”라고 찾아와 물었던 사람들이 프랑스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애착에 대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세상이 사랑의 의미를 잃을 경우, 세상은 미래엔 영혼을 감동시킬 어떤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불어문화권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이 방에서나 한국의 다른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어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학생과 교수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프랑스인인 제가 불어문화권 내에서는 소수파임에 대해 아무런 아쉬움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47개국에 달하는 불어문화권 가입국들이 4억 5천 4백만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불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예를 다시 들자면, 불어문화권 인구를 4억 5천 4백만으로 가정할 때, 이집트인 5천만 명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 1%만이 불어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어사용자가 소수파인 모든 나라에서 불어사용자와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일종의 전염에 의해 최소한 소수파의 언어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벨기에는 우리와 직접 이웃한 나라로서, 불어를 말하는 벨기에인은 일부 소수일 뿐이고 나머지 다수는 플랑드르어를 말합니다. 그들이 플랑드르어를 말할 때,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는 벨기에인을 볼 때면 불어로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그들이 세네갈인이나 베트남인, 혹은 프랑스인들을 만날 때면 불어로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불어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불어사용자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전염에 의해 불어가 낫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은 몇가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통계수치(數值)로서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불어는 세계 인구의 8-10%에 해당하고, 국제 총 교역량의 12%, 세계 총 교역의 20%에 해당합니다. 매우 엄밀한 정신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 저는 꿈을 꾸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제가 이제야 다시금 현대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통계수치로써 끝을 맺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선영아 역>